

하늘사랑

2019. March 3

www.kma.go.kr Vol. 453

특집

세계 기상의 날 특집

태양, 지구 그리고 날씨를 말하다

포커스 뉴스

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날씨 + 스토리

해양기후치유

기상청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기억하는 100년!
기약하는 100년!



100th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다시 100년을 향한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3·1운동의 위대한 외침이 평화의 100년 횃불로 이어져
대한민국 곳곳을 달립니다

국가보훈처

하늘사랑

2019 March Vol. 453 2019년 3월호(통권 453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54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19년 3월 10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김종석 **편집장** 임덕빈 **편집기획** 오철규 김혜정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MA Special Issue

특집
세계 기상의 날 특집
태양, 지구 그리고 날씨 · 02

포커스 뉴스
한 권으로 정리한
2018년 발생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과 영향! · 04
KMA-클라우드,
서비스와 효율 두 마리 토끼 잡는다! ·06

KMA About

열린마당
육아시간 활용, 성장하는 아빠가 되기 위한
가치 있는 선택 · 08
행복을 싣고 나에게 온 그녀의 휠체어 · 10
대기환경과학과 학생들의 로망 기상청,
내가 출근을? · 12
안녕, 나의 상하이 · 14
예술의 향기와 공연관람의 즐거움이 넘치는
"예다모"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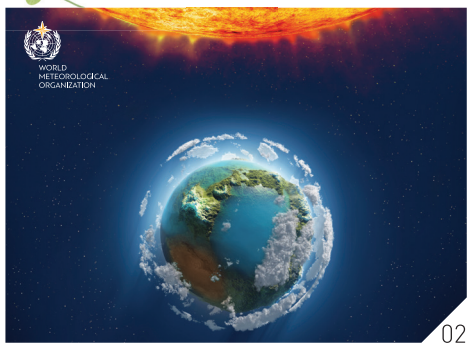
KMA 날씨 +

날씨 + Story 해양기후치유
바다가 우리를 치료해준다고? · 18
날씨 + Book 어른이 처음이라서 그래 · 20
날씨 + 여행 # 알럽보라카이! · 22
날씨 + 에세이 물난리를 겪고 책방을 이사하다! · 24
날씨 + 영화 '언더독' 한국적 풍광을 그려내다 · 26

KMA Report

포토 브리핑 · 28
오늘 당신의 날씨 · 30
포토 에세이 · 32

March



02


13


23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세계 기상의 날 메시지

태양, 지구 그리고 날씨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eather · Climate · Water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 **페트리 탈라스**
Secretary-General
Petteri Taalas

2019년 세계 기상의날 주제는 '태양, 지구 그리고 날씨(The Sun, the Earth and the Weather)'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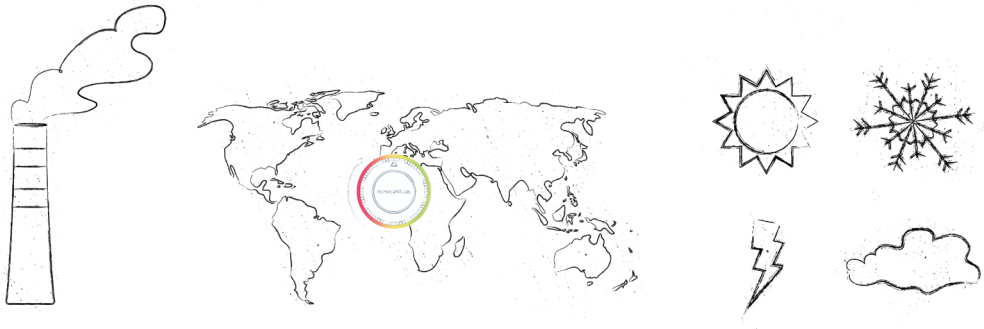
태양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에너지를 제공하며 날씨와 해류의 변화 및 물의 순환을 일으킵니다. 태양은 우리의 기분과 일상 활동을 결정짓고, 음악과 사진 및 미술의 영감이 되기도 합니다.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km 떨어져 있는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으로서, 지구의 생명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해줍니다. 뜨거운 플라스마 덩어리인 태양은 지난 45억 년 동안 기상, 기후, 지구의 생명체에게 힘을 주는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위성 관측 결과에 따르면 태양 에너지의 양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최근의 지구 온난화 현상을 태양 활동의 변화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구 기온의 상승으로 현재 빙하가 녹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대기 중에 오래 남아있는 온실가스입니다. 2017년 이산화탄소 농도는 405.5 ppm에 이르렀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90년 이후 기후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복사 강제력의 총량은 온실가스로 인해 4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지난 10년간 복사강제력이 증가하는데 82% 기여했습니다.







온실가스 농도 증가세가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이번 세기말 지구 전체 평균기온의 상승폭은 3℃에서 5℃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 이내로 유지, 나아가 1.5℃까지 제한하기로 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별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별, 지역별 및 전 세계적 차원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증가했으며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되었습니다. 폭염은 일찍 시작되어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더욱 잦아지고 강도도 더 세지고 있습니다.

여러 기후 모델의 예측에 따르면, 대다수 내륙 및 해안 지역의 평균 기온은 상승하고 거주지역 대부분에서 폭염이 증가하며, 여러 지역에서 호우가 많이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과 강수량 부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건강, 생계, 식량안보, 물 공급, 인간안보,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기후와 관련된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은 흐린 날에도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력 생산 또는 난방 및 담수화에도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WMO의 핵심 임무인 재난에 강한 사회(resilient societies)를 구축하기 위해 태양이 기상과 기후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WMO는 WMO의 통합적 지구 시스템 접근법을 통해 각 국가의 기상, 기후, 수문, 해양,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과학 및 현업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 권으로 정리한 2018년 발생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과 영향!

23개 관계부처 · 기관 합동 발간, 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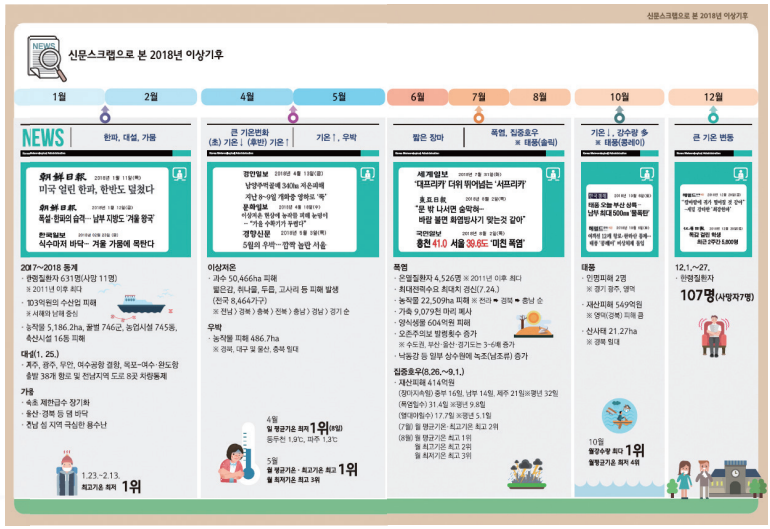
기후정책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상기후 현상에 취약하고 영향력이 큰 8개 분야*에 대해 이상기후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2010년부터 합동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기상청이 주관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이 협력한다.

* 농업, 해양수산, 산림, 환경, 건강, 국토교통, 산업·에너지, 재난안전



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



신문스크랩으로 본 2018년 이상기후 페이지

9번째, 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23개 관계부처 · 기관의 집필진 45명이 참여해 합동으로 발간('19.1.31.)한 이번 보고서에는 2018년에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 분야별 영향과 대응,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이 담겨있다. 특히, 새롭게 구성한 '신문스크랩으로 본 2018년 이상기후' 페이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이상기후와 그에 따른 분야별 피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2018년 이상기후보고서 주요 내용

2018년에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강한 한파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폭염과 함께 일최고기온 최고치도 경신(41.0℃, 홍천)되는 등 극한의 기온 변화를 보였다. 또한,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태풍 2개(솔릭, 콩레이)가 연이어 한반도에 상륙해 많은 비를 뿌렸다.

(한파 · 이상저온) 1월 23일~2월 13일에는 강한 한파와 대설이 발생하면서 1973년 이후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제주, 여수 공항 등에서는 항공기 결항이 많았다.

- 겨울철 한파(1월 후반~2월 전반)로 한랭 질환자가 631명(사망 11명) 발생하여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수산업에서는 해양 저수온으로 약 10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 봄철 이상고온으로 과수의 개화가 앞당겨진 가운데 일시적인 이상저온(4월초)이 발생해, 과수 꽃 냉해(50,466ha) 등 농업적 피해(전국 8,464가구)로 가을철 수확이 급감하며 사과, 배 등의 과수 가격이 급등했다.

(폭염 · 열대야)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짧은 장마일수(14~21일)를 기록했으며(평년 32일), 이후에는 폭염이 장기간 발생했다.

- 전국적으로 폭염일수는 31.4일(평년 9.8일), 열대야일수는 17.7일(평년 5.1일)로 최다 1위를 기록했다.
- 특히, 8월 1일에는 일최고기온이 홍천에서 41.0℃로 나타나 관측 기록 사상 최고를 보였으며, 서울도 39.6℃가 관측돼 111년(최초 관측일:1907.10.1.)만에 극값을 기록했다.
-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는 4,526명(사망 48명)으로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최대전력 수요도 92,478MW(7.24.)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한 해양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어류의 집단폐사 등으로 604억 원의 양식생물 피해가 발생했다.

(태풍 · 집중호우) 10월 5일~6일에는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상륙하면서 많은 비를 내려 10월 전국 강수량(164.2㎜)이 1973년 이후 최다 1위를 기록하였다.

-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8월26일~9월 1일)로 414억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으며, 태풍 콩레이의 내습으로 경상도 동해안 일대가 침수되어 2명의 인명 피해와 54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終

KMA-클라우드,
서비스와 효율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보통신기술과



천리안2A호의 성공적 발사와 고해상도 수치모델 현업화 등 기상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청에서 보유한 데이터와 정보시스템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런 빅데이터 환경을 전통적인 정보시스템 관리 기술로 수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KMA-클라우드'는 빠르게 변하는 기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시스템 도입 · 운영 체계를 만드는 기상청 전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다. '19년 초에 시범 서비스를 개시해 '20년부터는 기상청 홈페이지 등 주요 시스템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KMA-클라우드'를 소개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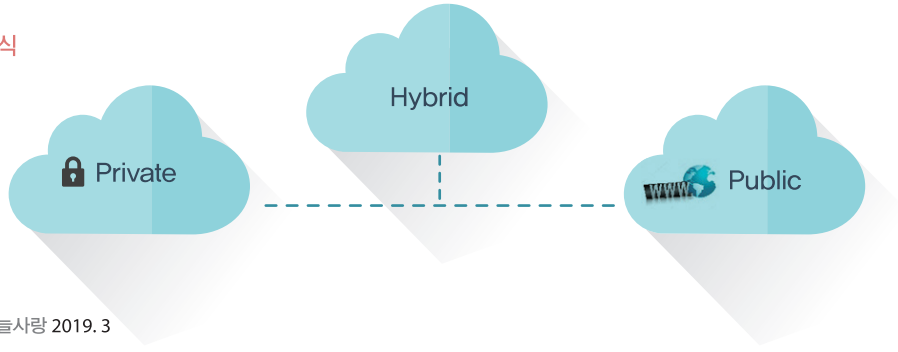
클라우드란, 가상의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클라우드는 일반적으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의미하지만, ICT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사용된다. 이는 구름으로 표현되는 가상의 인터넷 공간에 컴퓨터(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자원을 넣어놓고 이를 필요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은 이미 기업 내부 또는 외부 고객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름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듯이 클라우드 컴퓨팅도 구축 방식에 따라 퍼블릭(Public), 프라이빗(Private), 하이브리드(Hybrid)로 나뉘고, 서비스 모델에 따라서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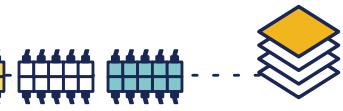
기상청 전용 클라우드, 'KMA-클라우드'

'KMA-클라우드'는 기상청 전용 클라우드의 고유 명칭으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자원 수요를 모아 이를 일괄 · 통합 구축하고, 공동 활용형 정보자원으로 만들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제공하는 기술과 서비스다.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Private Cloud),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IaaS 서비스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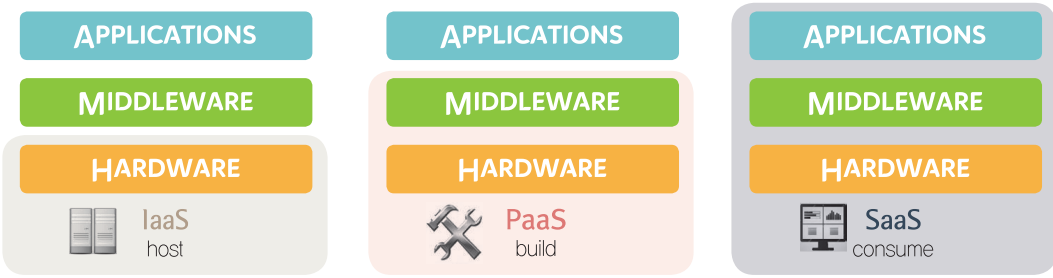
구축 방식







서비스 모델



서비스 명세

현재 KMA-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통합 정보자원 풀(Pool)은 본청(업무망, DMZ망)에 설치되어 있으며, 9가지의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있다.

구분	항목	업무망(6종)						DMZ망(3종)		
하드웨어	vCPU (Core)	4	6	8	12	12	12	4	6	8
	Memory (GB)	16	32	32	32	64	128	16	32	32
	DISK (GB)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소프트웨어	OS	CentOS (7.3), CentOS (7.4), Redhat (7.4)								
	WAS/WEB	Apache Tomcat(9.0)						Apache HTTP Server(2.4)		
	DBMS	MariaDB (10.2)								
네트워크		스위칭 , 라우팅 , 로드밸런싱 , 방화벽 (내부)								

KMA-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개별 부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둘째, 복잡한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을 자동화해 통상 수 주 이상 소요되던 작업 기간을 1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해 사용자들은 필요한 때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업무 부하에 따라 정보자원을 탄력적으로 할당 · 회수하게 됨으로써, 위험기상 발생 등으로 일정 부분 시스템 부하가 급격히 증가해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시스템이 불필요하게 과다 도입되는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로 도입되는 정보자원을 표준화 하는 등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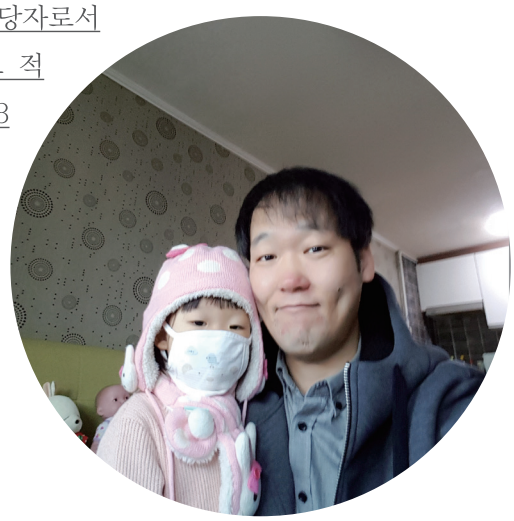
정보시스템 구축 · 교체 시, KMA-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우선 검토

앞으로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내용연수가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교체하는 경우, 예산 수립 단계부터 KMA-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정보화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 업무특성, 규모,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한시적으로 긴급하게 정보자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KMA-클라우드 웹포털(http://cld.kma.go.kr)에 접속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그룹웨어 통합로그인 연계, 3월말)

올해는 기상자료개방포털 등 본청에서 주로 사용하는 12개 정보시스템이 KMA-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구축 사업을 통해 KMA-클라우드 전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확충하고, 플랫폼 서비스(PaaS)까지 단계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육아시간 활용,
성장하는 아빠가 되기 위한 가치 있는 선택

일 · 가정 양립의 일환으로 육아시간 활용은 국가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우리 청 역시 육아시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이를 활용하는 직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 복무 담당자로서 육아시간 대상자임을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해오던 터라 4살 딸과 3살 아들을 둔 아빠인 내가 육아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시간의 육아시간, 전쟁같은 사랑

내가 육아시간을 활용한 가장 큰 이유는 아내가 어린 둘째 아들의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큰 딸의 어린이집 등원 도우미 역할을 도맡기 위해서였다. 기존에는 사무실에 있어야 할 아침 2시간은 늘 전쟁과 같은 시간이었다. 매일 달라지는 딸의 기분을 맞추어 그날의 옷차림을 고르는 것에서부터, 씻기고 옷 입히기, 어린이 집에 가기 싫다고 떼쓰며 우는 날에는 어르고 달래는 일까지 더해졌다. 첫 번째 미션인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기가 끝나면 밥 먹기 전쟁이 펼쳐진다. 건강을 위해 골고루 먹이고픈 아빠의 욕심 때문일까. 골고루 잘 먹어주면 좋으련만, 딸아이는 반찬만 먹고 밥은 그대로 남긴 채 "뽀로로 보고 갈래~"라며 아침 전쟁의 장기전을 예고한다. "1편만 보자"는 협상으로 시작되지만 늘 딸아이는 계약을 파기한다. "더 볼래~~" 결국은 아빠의 막무가내식 전원 오프로 마무리되는데, 울먹이며 집을 나서기 시작해 어린이집 도착 전까지 눈물을 훔치는 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행복한 등원 길이 오긴 올까 하는 생각이 든다.



류춘만
대구기상지청 관측예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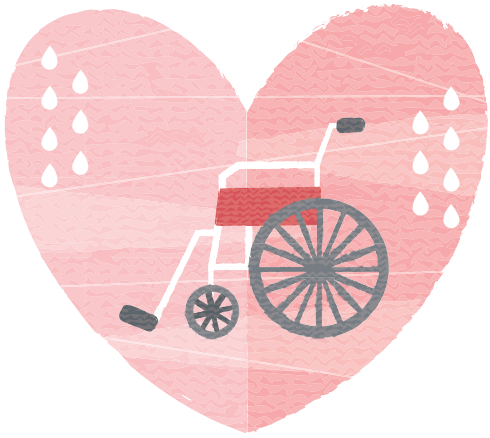


아이와 함께 성장한 아빠가 된 나

딸과 함께 아침 전쟁을 치른 지 1년여 가까이 지난 지금, 나에게 찾아온 변화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아빠에 대한 딸아이의 커진 사랑이 아닐까 싶다. 항상 엄마 품에서 엄마와 모든 것을 해왔던 아이가 이제는 화장실, 어린이집, 잠을 잘 때도 아빠 옆에 붙어서 함께 하려 한다. 흔히 말하는 아빠 껌딱지가 된 것이다. 약간 불편한 점도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한 불편함이 아닌가 싶다. 여전히 아침밥을 잘 먹지 않지만, 강요하지 않고 같이 개선해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함께 세수하고, 함께 이를 닦고, 함께 양말을 신으며, 딸과 함께 늘 활기찬 아침을 시작한다. 엄마가 집을 비운 날에도 아이는 아무런 보챔 없이 하루 일상을 시작한다. 아침마다 뽀로로를 찾으며 전쟁을 선포하던 아이와 아빠는, 이제 쫓기기만 하던 아침이 아닌 여유롭고 품격 있는 아침을 보내고 있다. 스티커 붙이기, 퍼즐게임 등 날마다 새로운 놀이에 도전하고, 놀이가 끝나면 아무런 투정 없이 옷을 입고 어린이집을 함께 나선다.

갑자기 시작된 아빠와의 아침 일상이 처음에는 아빠의 짜증과 아이의 울음에서 이제는 웃음과 사랑으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육아시간이라는 짧은 2시간이 더해진 1년은 아빠와 딸아이에게 서로의 일상 전체를 바꿔준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육아시간을 쓰면서 처음에는 업무에 쫓겨 오히려 늦게 퇴근한 날도 가끔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새 적응이 되어 좀 더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습관이 생겼다. 아이와의 사랑을 만들어 가고픈 기상청 모든 아빠와 엄마들, 육아시간을 통해 행복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

행복을 싣고 나에게 온 그녀의 휠체어







박보연
홍성기상대

즐겁게 시작한 기상교육업무

서울관측소로 첫 발령을 받은 후, 운 좋게도 나는 연고지인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에서 교육업무를 맡아 일하게 되었다. 다시 생각해보면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잘'은 아니지만 '즐겁게' 일했던 것 같다. 잠시 잊고 살았던 나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학습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학생을 위한 일반교육이 있고,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이 있듯이 대전지방기상청의 기후변화 이해 확산 프로그램들도 일반학생들을 위한 것이 었기에, 나는 특별한 사람(반드시 학생이 아닐지라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많은 애를 썼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 힐링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기후변화 교육에서 조금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어른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며 즐기는 것이었다. 교육=학생이라는 공식에 맞추어 진행되는 여느 프로그램과는 확연히 다른 목적이 있었고, 그 다른 목적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주무관으로서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지적장애, 지체장애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서 나는 다시 생애주기에 맞는 특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교육에 대한 장고(長考)의 시간을 보냈던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 행복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계기 덕분에 나는 남편과 함께 약간은 소외된 곳을 찾아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의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는 김천시에서, 그리고 연고지인 대전에서도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중 소영(가명)이는 나에게 좀 더 기억에 남는 소녀였다. 뇌병변장애로 태어날 때부터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소영이는 하지의 발달이 더뎌 늘 휠체어를 타야 했다. 그래도 상지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해 글씨쓰기 자체는 하지 못하더라도 펜을 잡을 수는 있는 정도였다. 소영이가 다니는 학교는 학군이 좋다고 소문이 난 곳이고, 소영이의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시며 경제적인 형편도 넉넉한 편인데다 학구열이 강하셔서 소영이의 학교를 결정할 때에도 통합교육을 원하시는 등 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소영이는 늘 밝은 얼굴이었다. 지체장애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목소리 톤도 일정하지 않으며, 쉰 소리가 나는 부정확한 발음이지만 또래도우미랑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선생님을 바라보는 눈빛에서도 어느 곳 하나 슬픔이나 짜증, 절망 등은 애초에 없어보였다. 식사시간에는 소근육이 발달하지 못한 손으로 불편하게 숟가락을 들고서는 낑낑거린다. 혼자서 하는 배변활동은 더욱 곤욕이다.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힘들어 보이는 소영이는 왜 항상 즐거워할까? 궁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를 포함해 몇몇 아이들과 바리스타 학원을 가게되었다. 무표정으로 가만히 앉아있던 나에게 부정확한 발음으로 소영이가 말했다. “바~악으으보여어언 서서서서언새애애님~ 소영이는 박보연 선생님이랑 같이 커피(바리스타 학원)에 와서 행복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라고. 그리고 연필 하나를 간신히 잡을 수 있던 그 불편한 상체로 머리위에 찌그러진 하트를 만들어 주었다. 그 순간이었다. 머리가 띵해졌다. 늘 나만 힘든 줄 알았기에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소영인 그저 우리와 함께 바리스타 학원에 와서 행복하다고 했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었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까이에 있는 소소한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뻔하게 알고 있음에도, 일상 속 행복을 느끼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지금부터! 오늘 하루 지각하지 않고 출근해서 얼마나 행복한가, 점심식사 반찬으로 내가 좋아하는 소시지가 나와서 얼마나 즐거운가?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소녀를 나는 그 때 만났다.



대기환경과학과 학생들의 로망 기상청, 내가 출근을?

대학교 3학년이 끝났음을 알리는 겨울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4주간의 현장실습이 강원지방기상청에서 시작됐다. 꿈에 그리던 기상청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한 가장 궁금했던 날씨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짧으면 짧고 길면 길었던 4주간의 시간은 기상청에 대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된 시간이었다.

설렘과 함께 기상청으로 첫 출근

2019년 1월 7일, 강원지방기상청으로 첫 출근을 하는 날. 아침 9시까지 늦지 않게 오면 된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나를 포함한 실습생 4명은 설렘과 떨리는 마음으로 보다 일찍 기상청에 도착했다. 각자 부서를 배치 받은 후, 청장님을 만나 이번에 기상청 현장실습을 신청한 이유와 기상청에서 배우고 싶은 것들 등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4주 동안 기상청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됐다.

고층관측의 시작, 라디오존데를 띄우다.

오전 9시에 본청으로 고층기상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오전 8시 15분에 라디오존데를 띄우는 실습을 했다. 존데를 띄우기 전에 라디오존데에 지상 관측자료값을 넣어주고, 장비들에 대한 설명과 띄울 때의 주의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띄어보기로 했다. 라디오존데는 학교에서 관측MT를 갔을 때마다 띄어보기는 했지만, 기상청에서 하는 것보다 스케일도 작고 몇 명밖에 체험을 못 해 아쉬웠었는데 직접 해볼 수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실습 중 하나였다. 라디오존데를 띄우고 현업실로 돌아와 존데가 올라가면서 자료가 잘 나타나는지, 1·2차 전문이 언제쯤 형성되는지 지켜보면서 존데를 띄워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이 존데가 어떻게 쓰이는 지를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또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자동가스유입장치가 있어서 헬륨을 편하게 유입시킬 수 있었던 것!



박지혜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예보의 핵심!? 일기도 그리기!

실습프로그램 일정 중에서 일기도를 그리고 예보관님들께 직접 검사를 받아보는 시간들이 있었다. 전날 밤 9시의 지상과 500hPa 일기도를 그렸는데 겨울보다는 여름일기도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해서 실습 중간부터는 여름일기도를 그리기로 했다. 학교에서도 일기도를 그려보기는 했지만 주로 겨울일기도를 많이 그렸기 때문에, 여름일기도를 처음 그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예보관님들께서 돌아가면서 기본적인 일기도를 그리는 방법과 기상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여러 예보관님들께서 첨삭을 해 주셔서 더욱 포괄적으로 일기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던 시간이었다. 일기도를 검사받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가장 좋았던 시간이다.

오후 예보브리핑 참관, 고층관측, 일기도묘화 등 기상청에서만 할 수 있던 경험들 덕분에 나에게 기상청에서의 한 달은 기상청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을 더 간절하게 해준 한 달로 남았다. 너무 짧았던 시간에 아쉬움이 많이 남은만큼 이 아쉬움을 기반으로 하루빨리 기상청에 입사해 내 꿈을 이루고 싶다.

안녕, 나의 상하이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2년도에 나는 1년 동안 중국 상해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원해서 간 것은 아니었고, 아버지의 일 때문에 우연한 기회로 가족 모두가 중국으로 가게 된 것이었다. 얼떨결에 시작된 중국 생활이었지만, 새로운 경험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상해여행의 필수 코스!

상해는 오래전에 개방된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고 북경에 비해 깔끔하다. 중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비교적 한가했던 나는 여행 명소들을 구경하러 다니곤 했다. 상해의 여행 명소를 몇 군데 소개하자면 먼저, 서울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난징루'가 있다. 동서로 길게 이어진 거리인데 음식점, 상점, 기념품 가게가 모두 모여있다. 또, '예원'이라는 중국식 전통 정원도 멋진 곳이다. 상해에서는 옛날식 건물을 거의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한번쯤 가볼 만하다. 무엇보다 상해는 야경을 빼놓을 수 없다. '와이탄'이라는 곳에서 황푸강을 마주하고 바라보면 마천루처럼 높은 빌딩들이 불빛으로 화려한 야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대로, 강을 뒤로한 채 돌아서면 노란 조명을 받은 유럽식 건물들이 이국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황푸강을 건너면 고층 빌딩 전망대에서도 전경을 즐길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동방명주나 상하이 세계 금융센터(SWFC)에서 보기를 추천한다. 이외에도 상해 근교 항주, 소주 지역을 기차나 버스로 방문해보는 것도 좋다.

중국에서의 1년…….

한 나라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게 좋다고들 한다. 나는 상해교통대학교에서 외국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등록했다. 학기는 2월부터 시작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4시까지 정규 수업을 들었다. 학교에서는 유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정규 수업 외에 방과 후 수업도 개설되었는데, 나는 서예를 신청해 배우기도 했다. 어떤 날은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쿠킹 클래스를 신청해 중국식 만두, 샤오롱바오, 딤섬을 만들었다.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한 거라 지금은 정확한 레시피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샤오롱바오는 만두피 안에 육즙을 가두는 것이 생명이어서 만두소를 넣고 만두피를 접을 때 꾹꾹 눌렀던 기억이 있다. 어설프게 만든 것이었지만 생각보다 꽤 맛있었다!



임유진
지진화산정책과

물론 이렇게 놀기만 한 것은 아니다. 외국인 어학연수는 그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직전 학기에 수강한 반에서 2단계 상향된 반으로 배정된다. 하지만 나는 등급 평가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 첫 학기에 초급 1반에서 3단계가 올라간 중급 1반에서 두 번째 학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1년여의 시간이 다 채워질 무렵, 나의 목표는 신 중국어 능력시험(HSK) 5급을 따는 것이었다. 중국어 능력시험은 듣기, 독해, 쓰기 등 3가지 영역이 있다. 5급은 이전에 땄던 4급보다 어휘 수가 1,300자 정도 추가되었다. '난이도가 높은데 과연 붙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다. 시험 보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 5급도 합격해서 무척이나 뿌듯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나는 다시 학교 복학을 위해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再见! 안녕, 나의 상하이

한국에서만 있었으면 몰랐을 우리와 다른 문화를 해외 타지에서 지내며 직접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수학여행으로 상해에서 장가계까지 현지인들과 함께 20시간 동안 침대 기차를 타고 가는 경험을 내 생애 다시 해볼 수 있을까. 벌써 7년 전 이야기이다. 그리 긴 인생은 아니지만, 평범했던 내 인생에서 특별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끔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다.





예술의 향기와 공연관람의 즐거움이 넘치는 "예다모"

뮤지컬!! 말만 들어도 왠지 가슴이 설렌다. 요즘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힐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상청에는 등산, 당구, 축구, 낚시, 몸짱클럽 등 다양한 동호회가 구성되어 직원간에 즐거운 취미활동을 통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예다모'와 함께 신나는 뮤지컬 여행을 떠나 보자!







김하진
계측기술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함께 모여 소통하는 모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으로 출발!

기상청에는 '예다모'가 있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함께 모여 소통하는 모임(회장 김금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으로, 역사는 약 10여 년이나 거슬러 올라간다. 약 50여 명의 회원 중 25명의 회원이 지난 2월, 뮤지컬「플래시 댄스」공연 관람을 위해 퇴근 후 세종문화회관으로 삼삼오오 출발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들어서니 가족, 연인, 직장인 등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연에 대한 기대로 들뜬 모습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만큼 그 인기도 실감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이번 공연이 영국 웨스트엔드 오리지널 내한공연이라서 그런가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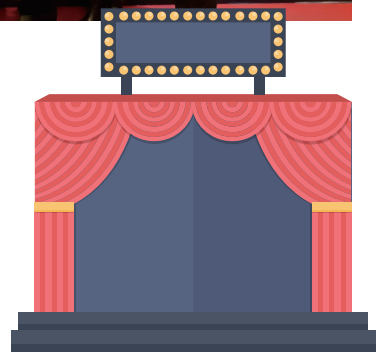
미래를 위한 몸과 마음의 힐링

뮤지컬 플래시 댄스 공연은 1980년대 초에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의 이름과 내용을 바탕으로 재탄생된 것이다. 뮤지컬 공연 도중에 80년대를 풍미했던 흥겨운 팝송 뮤직과 함께 현란한 댄스 동작이 있을 때 마다 객석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예다모 회원을 포함한 공연장의 모든 관객들은 배우들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신명나는 음악과 춤을 즐겼다. 뮤지컬 공연 남녀배우 모두가 매우 아름다웠지만 플래시 댄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춤 실력도 일류 수준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연도중 직접 노래를 부르는 남여 배우의 성량과 목소리가 반할 만큼 멋있었다는 점이다. 공연 중간 중간에 관객들이 보내는 열렬한 박수와 환호가 끊이질 않았다. 브라보! 브라보!









예다모 활동의 즐거움

기상청 "예다모" 동호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단체 공연 관람을 하고 있다. 어떤 공연이 좋은지 또는 어떤 내용이 좋은지에 대해 회원 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날짜와 일정을 조정하며 공연 관람을 이어가고 있다. 일산 고양아람누리에서 진행된 금난새 음악가가 지휘하는 50인조 오케스트라 콘서트,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의 사물놀이 공연, 강남 네오아트홀과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의 연극공연,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의 빈센트 반 고흐 그림전시회, 여의도 KBS에서의 콘서트 7080 등 수 많은 공연 관람이 이렇게 진행된 것이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동숭동 대학로 소극장에서의 연극 공연으로, 공연이 끝난 후 뒷풀이로 공연배우와 예다모 회원이 동행해 막걸리 한 잔과 함께 사진도 찍고 기타도 치면서 신명난 노래를 함께했던 추억이다.

직장생활의 또 하나의 행복

플래시 댄스 공연 관람 후 회원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 모여 행복에 가득 찬 환한 미소를 띠우며 관람 느낌이 어떠했는지를 서로 간에 묻는다. 어떤 회원은 신명나는 댄스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회원은 뮤지컬 공연 중 삽입곡으로 나온 80년대의 흥겨운 오리지날 팝송 뮤직에 반해 몸이 저절로 들썩거렸다고 했다. 예다모가 이번에 선정한 영국 내한공연 뮤지컬 플래시 댄스 공연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는'대만족'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회원들의 가벼운 발걸음과 함께 '다음 공연 관람은 언제쯤 또 하지? 다음 공연 관람은 어떤 내용일까?' 만족감에 젖어 대화를 하는 회원들의 소리가 나의 귓가에 들려왔다. 아~~ 이러한 예다모 활동이 직장 내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자 소통이로구나!! 다음 예다모 공연이 또 다시 기다려진다.

해양기후치유

바다가 우리를 치료해준다고?

요새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스트레스와 걱정거리로 잠을 잘 못 이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가뜩이나 마음도 힘든데 눈치 없는 미세먼지는 걸핏하면 나쁨을 가리키면서 몸까지 힘들게 만들어버리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네요. 바쁜 와중에도 한 발짝 쉬어가며 나의 감정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듬어 줄 아주 새로운 방법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날씨를 이용해서 심신을 치유하는 기후요법! 그 중에서도 특히 '해양기후치유'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송예린
기상청 11기 블로그 기자단

① WHAT, 해양기후치유란

해양기후치유는 해양기후를 이용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바닷가의 맑은 공기와 바람, 해양에어로졸(미세입자), 태양광, 모래사장,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우리를 치유해주는 것이지요. 해양기후요법을 탈라소테라피라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이는 그리스어로 해양을 뜻하는 'Thalassa'와 치료를 뜻하는 'Therapy'가 합쳐진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치유에 활용 중이지만 아직까지 해양자원을 이용한 치유시설은 없다고 해요. 해외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 유럽에서 100여 년 전부터 치유와 재활, 관광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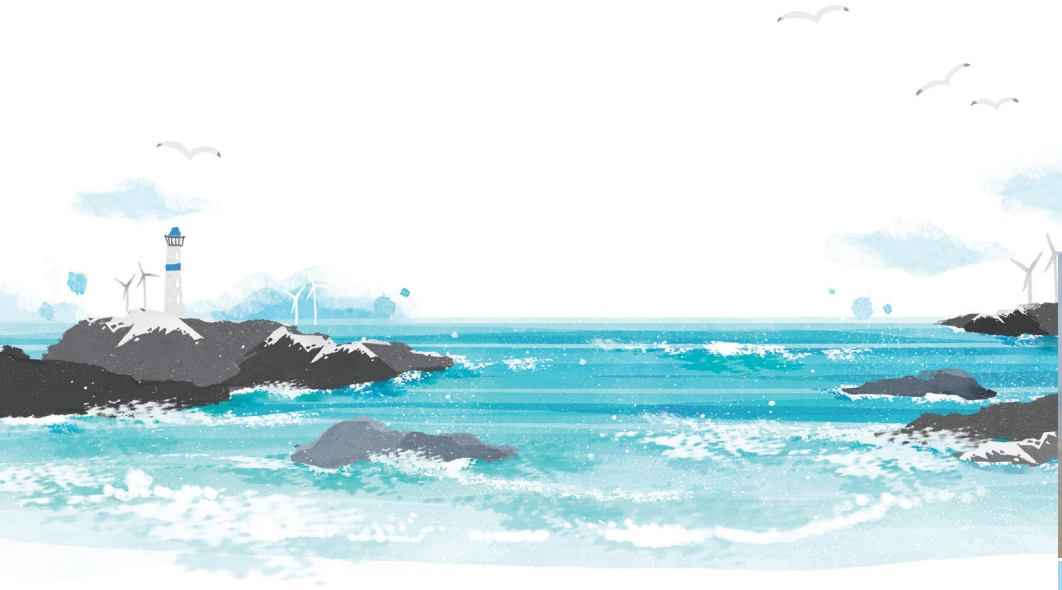
② WHY,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1) 파도소리

파도소리는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그 이유는 파도소리 속에 담겨 있는 백색소음이 우리 뇌에서 '알파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알파파는 명상이나 연상을 할 때 긴장이 풀리면서 나타는 것으로 마음에 안정을 주고 집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잠시나마 두 눈을 감고 파도소리를 한 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2) 해양 에어로졸

바닷가에는 작은 물방울들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작은 입자인 에어로졸의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염분 입자가 들어오면, 섬모운동을 촉진시켜 가래나 이물질을 쉽게 배출하게하고 또 기관지의 염증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노르딕 워킹, 해변요가 (출처 : 완도군청 홈페이지)

3) 모래사장, 태양광

부드러운 모래 위에서는 단단한 지면에서보다 균형을 잡는데 더 집중해야하기에 운동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또한 모래사장에서는 충분한 햇빛을 받을 수 있으니 햇빛을 통해 합성되는 비타민D도 걱정 없겠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이 비타민D는 꼭 필요한 존재랍니다.

③ HOW, 해양자원 활용법

완도의 '해양치유산업'을 소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양기후치유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도군은 2019년을 해양치유산업 추진의 원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완도는 다양한 종류의 해양자원을 확보하고 청정성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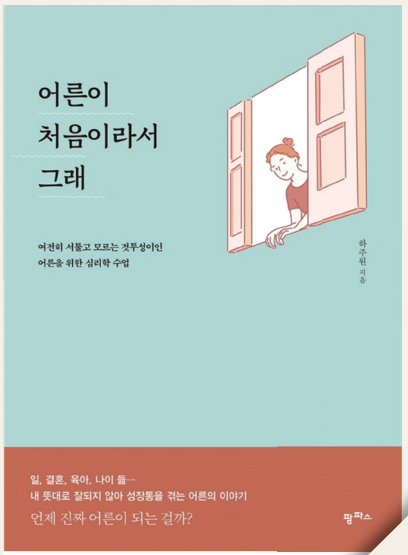
<완도의 해양치유 최적의 요건>

– 265개의 아름다운 섬, 청정바다, 리아스식 해안선
– 갯벌 + 고운 모래 해수욕장
– 해수 수질 1등급, 해양생태 1등급
– 국내 최대의 해양생물 생산지역

이렇게 좋은 해양자원을 토대로, 작년에 시범 운영을 했던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매우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진을 한 번 볼까요?

바닷가에서 활동들을 보니 저도 참여해보고 싶단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도 해양헬스케어센터, 공공해양치유전문병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해양치유산업으로 더욱 도약해나갈 완도를 함께 기대해보아요.

사실 현대인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보살필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감정소모를 하고도 다시 채우지 못한 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니 아예 감정이 소진되어 버리는, 번아웃증후군(burnout : 극도의 피로, 연료 소진)이 늘어난 것도 그 때문이겠지요. 우리의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틈을 내어 바다를 찾아가보면 어떨까요? 바닷가에 가만히 앉아 파도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붙여도, 보드라운 모래사장을 하염없이 걷기만 하더라도요! 뭐든 좋지 않을까요? 그 시간은 온전히 나만을 위해 생각할 수 있도록 바다가 도와줄 거에요. 그리고 돌아가는 우리는 좀 더 건강해져 있겠죠?



어른이 처음이라서 그래

저자 **하주원** | 팜파스출판사

근래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인간으로서 성숙하다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 과연 나는 성숙한 인간일까?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야”라는 가르침에 단지 착한 사람이 되어야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지, 인간관계 속에서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건 아닐까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나는 한 권의 책을 만났다.

‘어른이 처음이라서 그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저자가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이야기들을 일상에서 쉽게 공감하며 읽을 수 있도록 풀어놓은 책이다. 처음에는 생애주기별 발달단계와 그 단계에서 결핍되는 부분에 따라 어떤 성향의 사람이 되기 쉬운지를 신경과 뇌의 발달 과정 등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풀어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나 행동들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그 중에서 나에게 특히 와 닿았던 이야기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김양희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하나. 부부관계

같이 사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환경이다. 사람이라는 환경을 바꾸고자 할 때는 역효과를 각오해야 한다. 사람이 자신을 바꾸려는 다른 사람의 뜻에 따르는 경우는 두 가지다. 첫째, 정말로 상대방의 생각이 옳아서 납득하는 것이다. 둘째, 귀찮고 힘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받아들이거나.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했을 때이다. 하지만, 이때는 한계가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적응시키려는 노력보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편이 훨씬 낫다. 변화는 반드시 자기 반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잘못되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태도. 열심히 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현재의 환경에서 조금 바꿔보겠다는 태도가 어른에게 더 도움이 된다.

둘. 화

화를 제대로 내는 것은 내 감정을 표현하여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유교 문화권에서는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제대로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한다. 그런 문화가 직설적 표현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드물어 좋은 점도 있지만, 진짜 자신의 감정은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가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쓸 때 우리나라 엄마들은 화가 났다고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점원을 가리키며 "저 아저씨가 이놈한다."라고 돌려 말한다. 이따금은 "너 도대체 왜 이래?"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너'를 주어로 하면 상대방은 이를 공격으로 받아들여 상대방도 더 화날 확률이 높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화를 표현할 때는 '나'라는 주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나는' 또는 '내가'를 문장에 넣을 자리가 있어야 한다.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으나, 어쩔 수 없이 오가는 표현이 한결 부드러워져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셋. 위로

마지막으로는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스스로를 다독여야 할 경우도 많다. 이 때 사람들은 대체로 자책하며 남에게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쉽게 한다. 나를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고 위로할 줄 알아야 한다. 친구에게 하지 못할 이야기는 안하는 편이 낫다. 그렇게 해도 스스로 위로가 안 될 정도로 괴롭다면 타인의 시선에서 나 자신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 책은 이 외에도 평소 궁금했던, 누구에겐가 물어보고 답을 구하고 싶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답안지를 슬쩍 보여주는 듯 했다. 꼭 정답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했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어 줬다.

괜찮아. 어른은 처음이잖아.



알럽보라카이

작년 연말 친구들과 송년모임을 하다 '급' 예매한 항공편을 타고 가게 된 보라카이 여행기!





이나혜
광주지방기상청

보라카이는 공사 중!

보라카이는 필리핀의 휴양 관광섬으로 대표적인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관광지다. 이 때문에 필리핀 당국은 작년 4월부터 약 6개월간 보라카이를 잠정 폐쇄하면서 쓰레기부터 정화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리조트 등을 철거하며 하수시설 완비 및 도로확장공사 등을 통해 재정비를 했다. 재정비 후 다시 개장했다는 말에 기대를 안고 간 보라카이는 흩날리는 공사 먼지에 마스크 없이는 거리를 다닐 수 없었고 여기저기 공사 중인 곳이 많았다. 우리나라처럼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데다 느긋하게 일하는 필리핀 사람들을 보니 앞으로 2,3년 안에도 재정비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보라카이. 하지만, 끊임없이 흩날리는 먼지들을 다 감수하고도 다시 가겠다고 할 만큼 예쁘고 예뻤던 보라카이의 비치들.

석양이 아름다운 화이트비치

보라카이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화이트비치는 낮이든 밤이든 언제봐도 좋았다. 지금까지 본 어떤 해변보다도 예뻤으며, 그 예쁜 해변에서 즐겼던 액티비티는 더욱 훌륭했다. 세일링보트를 타고 나가 시원한 바람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배를 타고 조금 더 나가 스쿠버다이빙도 했는데 배경이 훌륭해서인지 무엇을 해도 즐거움이 배가되고, 사진을 찍어도 그림처럼 예쁘게 연출됐다. 특히 화이트비치에 석양이 질 때면 모든 사람들이 넋을 놓고 비치를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이 멋있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했다.. ^^





푼타분가비치

여유로운 푼타분가비치

보라카이엔 화이트비치 말고도 많은 비치들이 있는데 그 중 2곳의 비치를 더 가보았다. 내가 묵었던 모벤픽 숙소 바로 앞에 있던 푼타분가비치는 보라카이섬에서 북쪽 끝(스테이션 0쪽)에 위치해 숙소에 묵는 사람들 말고는 인적이 거의 없어 정말 조용하고 여유로웠다. 독사진도 예쁘게 찍을 수 있어 너무 마음에 들었던 비치였다.

파도가 조용한 드니위드비치

화이트비치 밑에 있는 드니위드비치는 파도가 거의 없어 관광객들이 패들보트나 수영을 하기에 정말 적합했다. 여기있는 숙소들은 거의 다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불에 태워져 폐가가 된 곳이 대부분이었다. 비치만 보고 와야 된다는 점때문에 아쉬웠지만, 여기서 타는 패들보트는 정말 매력적이었다. 항상 여행을 가서 액티비티를 하면 한가지씩 내 맘을 붙잡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번엔 패들보트였다. 40분 내내 혼자 패들보트만 열심히 탔더니 팔은 새까맣게 타고 근육통에도 조금 시달렸는데, 나는 한국에서도 패들보트를 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다시 찾아보고 있었다.



푼타분가비치



드니위드비치

물난리를 겪고 책방을 이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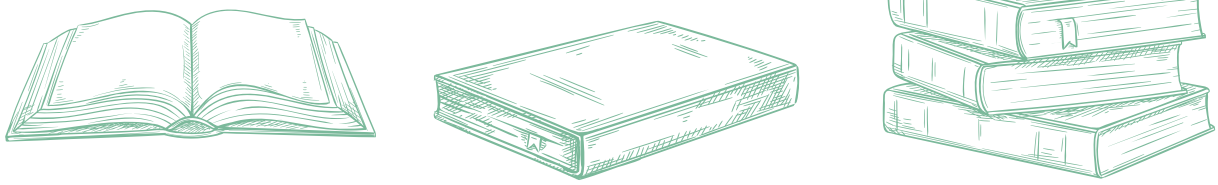
소설가 이태준 선생은 〈무서록〉에서 책을 두고 이렇게 예찬했다.

"책은 한껏 아름다워라. 그대는 인공으로 된 문화물 가운데 꽃이요 천사요 또한 제왕이기 때문이다."

이태준 선생의 문장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곤 헌책방을 열기에 이상적인 북쪽으로 출입문이 있고, 창문은 작지만 통풍이 잘되는 1층, 천장이 높으며, 좁고 긴 직사각형 형태의 공간을 꽤 오랜 시간 찾아다녔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공간을 찾기란 별따기. 내가 원하는 공간은 임대료가 만만치 않고 임대료에 맞추면 이상적인 공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앞에 나열한 조건들이 중요한 건 책을 가능한 많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습기와 빛(자외선)으로부터 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책이란 얼마나 까다로운 존재인가. 꽃이기도 하고 천사이기도 하고, 또한 제왕이기도 하지 않은가. 그들은 조금만 무심하게 방치해도 색이 바래고, 좀이 먹고, 낡아 부서지고, 운이 나쁘면 물에 젖기도 한다. 19세기 영국의 인쇄업자이자 애서가였던 윌리엄 블레이즈는 그의 책 〈책의 적〉 (서해문집, 원제 The Enemies of Books)에서 열 가지 '사악한 존재'에 대해 말했다. 책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악한 존재들은 다음과 같다. 불, 물, 가스와 열기, 먼지와 무관심, 무지와 편견, 책을 먹는 좀, 해로운 동물, 제책사의 횡포, 서적 수집광, 하인과 아이. 이 '무서운' 존재들로부터 책을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사실 없다.



조경국
소소책방 책방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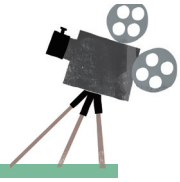
헌책방 책방지기로 6년차, 지난 시간을 되새김하면 가장 힘든 일은 모두 궂은 날씨 때문에 일어났다. 책이 팔리지 않는 것쯤이야 얼마든 참고 견딜 수 있지만 비라도 거세게 몰아치는 날이면 마음이 쪼그라든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쪽은 열 가지 책의 적 중에서 첫 번째인 불보다 두 번째인 물이었다. 불은 인재로 일어나는 것이라 조심하면 막을 수 있지만 '물난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여름 태풍 솔릭이 상륙했을 때는 최악이었다. 솔릭이 한반도를 지나는 날은 정말 악몽 같은 하루를 보냈다. 책방이 강과 가까운 저지대 반지하에 있는지라 솔릭이 거센 비를 뿌리자 걷잡을 수 없이 책방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다. 설상가상 책방 배수로에 물을 빼내는 펌프까지 고장나 바닥에 쌓아둔 책들은 모두 젖을 수밖에 없었다. 한번 물에 젖은 책은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다. 특히 오래된 책들은 더욱 습기나 물에 취약해 물에 젖으면 종이가 부풀고 책등이 벌어진다. 어떤 경우엔 종이가 서로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에 잠긴 책들을 눈앞에 둔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망연자실하다'는 말은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리라. 빗자루와 쓰레받기, 양동이, 걸레 모든 도구를 이용해 물을 퍼냈지만 하늘에 구멍이 난 듯 퍼붓는 비를 어떻게 이기랴.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달은 하루였다. 결국 내리는 비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반지하에선 자외선으로부터 책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물을 피할 수는 없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게 마련이다.

그 일을 겪고 더는 똑같은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진 않았다. 결국 내가 선택한 방법은 반지하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올 여름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책을 물에 적시는 일은 막아야겠다고 결심했고, 결국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사할 공간을 구해 공사 중이다. 더는 물난리를 겪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출입문이 북쪽에 있고, 직사각형 건물이다. 천장도 그리 높지 않고 좁긴 하지만 지금까지 책방을 했던 곳 가운데 처음 꿈꾸었던 완벽한 공간에 가장 가까운 곳이다. 이제 더는 책방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털어놓자면 이번 이사를 포함해 책방을 열고 짧은 기간 동안 모두 네 번이나 책을 이고지고 다녔다. 책방 이사는 괴롭고 고단하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던 것일까. 혹시 진시황이 분서갱유하던 시절 신이 나서 책을 불태우던 병졸이 아니었을까.

‘언더독’ 한국적 풍광을 그려내다

이글을 쓰고 글이 올라가는 시점에 영화 애니메이션 ‘언더독’(2019년 1월16일 개봉)극장상영은 끝날 무렵이겠다. ‘언더독’의 제작사인 오돌또기는 2011년 ‘마당을 나온 암탉’ 애니메이션 영화로 한국애니메이션 최고 흥행기록(220만)을 세웠다. 이후 7년 만에 ‘언더독’이라는 유기견 소재의 작품을 내놓았다. 실 관람객이나 전문가 평점 등 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받으며 흥행을 예감했으나 겨울방학 시즌에 미국 애니메이션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참패했다. 하지만 ‘언더독’을 본 관람객은 작품성과 메시지 특히 배경그림의 수준과 가치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해주었고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잡고 다음 작품을 준비한다.

오성윤
공동감독



‘언더독’은 버려진 유기견들이 인간과의 공생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간이 없는 자연의 땅을 향해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로드무비이다. 북한산 자락에 버려진 주인공 뭉치의 모습을 시작으로 폐가마을, 자유로, 파주, 마지막으로 DMZ까지 다양한 한국의 풍경이 매우 중요한 이미지로 그려진다.

애니메이션은 시나리오를 쓰고 주요장면들에 대해 그림설계를 한다. 공간적 배경뿐만 아니라 영화 전체의 시간흐름에 따른 계절선택, 장면이 전개되는 시간대 설정 그리고 날씨까지 세심한 점검을 통해 한 장면에서 표현하고자하는 감정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그려내기 위한 최적의 환경설정을 하는 것이다. 활기찬 장면에서는 맑고 싱그러운 오전이나 태양빛이 선명한 이른 오후를 설정하고, 우울하고 정서적으로 침잠하는 장면에서는 흐린 날이나 비오는 날을 설정한다.

영화전체의 이야기 흐름에 맞춰 계절 변화도 민감하게 설계하는데 ‘언더독’은 이른 봄에서 시작해 뜨거운 여름을 지나 초가을로 마감하는 설계를 했다. 영화는 뭉치가 북한산 자락에 버려지는 장면으로 시작되지만 역설적이게도 만물이 소생하는 봄으로 설정함으로써 비애감을 더욱 느낄 수 있게 했다. 또한 그날 밤,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오면서 자연에 적응하지 못하고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 뭉치의 암울한 심리상태를 표현했다.

영화가 암울하게만 그려지지는 않는다. 다음날 선배 유기견들이 철쭉꽃밭 속에서 나와 뭉치를 만나면서 분위기는 반전된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연두색의 향연과 꽃들이 만발한 봄 풍경을 배경으로 새로운 삶을 이루어내길 기원한다. 유기견들은 북한산 들개들을 만나면서 인간이 없는 자연의 땅을 찾아 여정을 시작한다. 그러나 가는 길은 녹록치가 않다. 군견출신 개코가 자유로의 철망 너머 드넓은 갈대밭을 보고 DMZ로 오해하게 된다. 자유로를 건너면서 유기견 무리는 큰 위기와 로드킬을 당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이른 오후시간이지만 무겁고 슬픈 장면이어서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어두운 먹구름이 가득한 흐린 날로 설정했다.





역경을 딛고 갈대숲에서 개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고라니 사냥을 하게 되는데 햇빛을 받은 화사한 갈대숲을 살려 힘차고 역동적으로 그려나간다. 무리들은 갈대숲이 DMZ가 아님을 알게 되고 다시 길을 떠난다. 그러나 계절은 이제 무더운 여름이고 개들은 힘든 여정을 이어간다. 이들의 목적지 DMZ에서는 초가을로 설정했다. 가을은 이들이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시발점으로 매우 의미 있으며 시각적으로도 충만한 안정감을 주고 싶은 계절이다. 도입과 전개과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을의 다채롭고 깊은 색감을 통해 자연낙원의 이상향을 그림으로 펼쳐 보이고 싶었다. 이처럼 '언더독'은 장면의 분위기, 정서 그리고 등장인물의 감정 상태에 따라 계절과 날씨를 적절히 선택하여 보는 이들의 공감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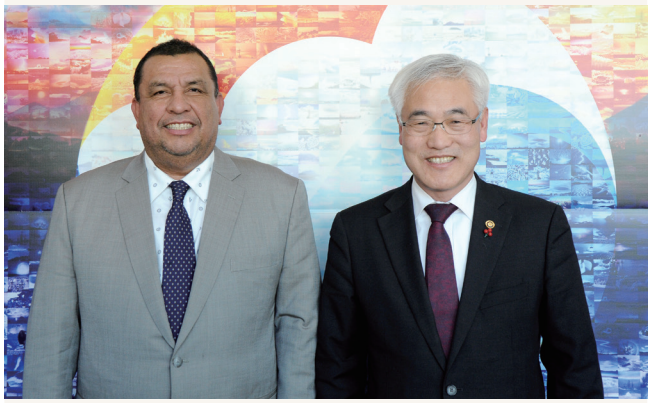
마지막 관문인 높은 철망을 넘어 결국 이들은 비무장지대 DMZ에 도착하며 영화는 끝난다. 그러나 자유와 행복을 찾아왔지만 아직 주체적 자연아로 거듭난 것은 아니다. '이들이 이 새로운 야생의 공간에서 잘 살아 갈 것인가? 새로운 자기정체성을 찾아내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이루어 낼 것인가?' 는 언더독2편에서 다루어 내고 싶은 이야기다.

나는 DMZ가 한반도의 닫혀있는 성장판으로 느껴진다. 성장판이 열리는 순간 경제적으로나 문화 예술적으로도 자유롭고 행복한 상상을 펼쳐 나갈 것이다. 비무장지대 안의 풍광은 어떠할까? '언더독2'를 제작하는 그날을 또 새롭게 꿈꾼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주한 니카라과 대사 기상청 방문(2월 14일)

김종석 기상청장은 주한 니카라과 대사(에드가르드 호세 가르시아)를 접견하고, 한·니카라과 간 기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상콜센터 상담사 정기교육 실시(2월 14일)

기상콜센터 상담사 20명이 봄철 기상현상(황사, 뇌현상, 안개 등)과 지진정보 이해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



2019년 전국 관측과장 회의 개최(2월 18일)

기상관측 관련 주요정책 공유와 현안과제에 대한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 관측과장 회의가 개최됐다.



기상청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면담(2월 19일)

김종석 기상청장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면담하고,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Photo News



기상청·해양경찰청 해양분야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2월 21일)

기상청은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언론인 기상강좌 개최(2월 21일)

기상강좌를 개최해 출입언론인을 대상으로 봄철 날씨 및 기압계 특징, 황사에 대해 설명했다.



어업인 대상 해양기상서비스 설명회 개최(2월 22일)

광주지방기상청은 지역 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기상관측장비 및 해양기상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해양기상관측자료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서해상 인공강우 실험 상세 분석결과 브리핑 실시 (2월 27일)

기상청과 환경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1월 25일) 서해상에서 진행했던 인공강우 실험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 당신의 날씨

우리는 같은 날씨 안에서도 저마다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땠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들려주세요

참여 방법

자신의 일상이 담긴 날씨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소개 멘트를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kmanews@korea.kr에 3월 25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께는 온누리상품권(1만원)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실 때는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꼭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본 코너에 선정된 사진은 발표 해당호에 한해 게재되며,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 규정을 어겨 응모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태규(인천)

2019년이 엊그제 시작된것 같은데,벌써 따뜻한 봄날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작년, 벚꽃축제에서 찍은 사진인데 벌써부터 아름다운 '벚꽃'이 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올해도 벚꽃놀이를 즐기면서 행복한 추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유성출(통영)

찬바람이 불기 시작 할 때 아들과 순천만 갈대밭여행. 항상웃음이 넘치는 아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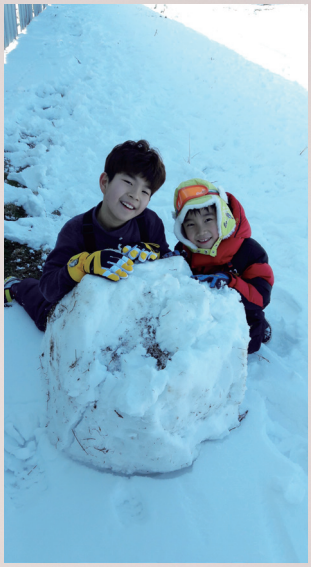
용해숙(서울)

2월 끝자락, 겨울 제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느 누가 하늘과 바다를 캔버스 삼아 색칠했나봐요! 한 폭의 그림 같았던 순간.



김태완(울산)

몽골 여행 때 만난 햇무리. 우리나라에선 자세히 본적이 없었는데 몽골의 광활한 초원위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양유심(제주)

올해는 눈이 많이 안와서 아이들이 많이 아쉬워했다죠?
아쉬운 마음에 작년 1월에 찍은 사진을 보냅니다.
내년 1월엔 적당히 눈이 와서 눈사람도 만들고 눈썰매도 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범(서울)

모처럼 맑개 개이고 미세먼지도 없는 화창한 주말 수락산으로 등산을 떠났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활짝 펴고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마시니 절로 힘이 나는 것 같네요.
산 높은 곳까지 이렇게 기상관측장비를 통해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기상정보를 전달해 주기에 안심하고 등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장삼동(부산)

지난 2월 19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부산 화명생태공원에서는 약간 흐린 날씨 속에서도 저녁 달이 뜨는 시점에 맞추어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지역구민들이 참석해 액운을 날려 보내고 가정의 안녕과 소원을 빌고 풍요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방성향(제주)

서귀포에서 오랫만에 제주시로 여유롭게 여행을 떠난 날
햇살은 따뜻하고, 하늘은 청정하여 가슴이 저절로 콩닥콩닥 뛰더군요
거기에 흐드러지게 핀 매화는 그 향 또한 감탄을 자아내게 향긋하였답니다
오감만족을 이룬 기쁨 봄, 제주였답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 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사진 : 목영해, 〈봄의 전령사, 매화〉, 2018년 기상기후사진전 계절사진상 / 글: 윤기한

봄날

마사토 깔려 소금같은 몇개 모래알의
운동장
화단 담장은 페인트 벗겨졌으나
햇살에 달구어져 손대도 따뜻하고
봄처럼 작은 꽃들 속에는 더 작은 벌들이
날아다니고...

운동장 귀퉁에는 빗자루 흔적이 있는
쓰레기 수집장에 태운 재가 모아져
있던...

그 봄날... 아지랭이 피던 그 운동장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2019 국가안전 대진단

- **점검기간**
  2019년 2월 18일~ 4월 19일 (61일간)

- **점검대상**
  건축물, 시설물 등 14만개소
  ※부처 판단 위험시설, 최근 사고 발생 시설
  ※국민 관심분야 · 위험성 높은 시설 등

- **점검방식**
  중앙·지방·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

- **참여방법**
  - **·자율점검**
    내 집과 내 점포는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
    ※안전점검표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신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주세요









2019 WORLD METEOROLOGICAL DAY

세계기상의 날

태양, 지구 그리고 날씨를 말하다



|주 최| 기상청 |일 재| 2019년 3월 21일(목) |장 소| 공군회관 SKY컨벤션센터(기념식) / 기상청 일대(부대행사)